

# 찬스에 강한 KIA 박준태 “내년 좋은 지표 나올 것”

데뷔 후 최다경기 소화...타율 낮지만 득점권 강해



KIA 타이거즈 외야수 박준태는 올해 데뷔 이후 가장 많은 85경기에 출전했다. 2014년 입단해 2년간 뛰었고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해 2018시즌 백업선수로 충실한 한 시즌을 보냈다. 실수도 있었지만 홈런도 치면서 세 번째 시즌의 커리어를 쌓았다. 수확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던 시즌이었다.

150타석에 들어섰고 타율은 2할 2푼8리에 그쳤다. 그러나 5개의 홈런도 때렸고 24타점과 32득점을 올렸다. 특히 타율은 낮지만 득점권에서 32타수 12안타를 날려 3할 6푼4리에 이르는 등 찬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득점권에서 4 홈런을 기록했다.

박준태는 “신고선수로 시작해 1군 풀업이 되어 시즌 마감까지 1

군에서 소화했다는 것이 수확이다. 입대전보다 조금이나마 나아졌다.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다. 수비에서 안던져도 되는 송구를 했다.

타격도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좋아졌다. 앞으로 가능성 있겠다는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도 좋아졌다. 입대전에는 내 스윙을 아예 못했다. 살아나가는게 목적이었다. 올해는 자신있게 스윙을 했고 번트 성공 등 상황에 맞는 작전플레이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다. 내년에는 좀 더 차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슈였던 점은 역시 기록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타율은 2할 2푼8리이다. 출루율은 3할7푼인데 사사구(20개)가 많았다. 특히 볼을 맞이 있었는데(8개) 몸쪽 공을 잘 피하지 못했다. 어릴때부터(살아나가기엔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서인지 본능적으로 피하지 않는다”라며 웃었다.

마무리 캠프에서는 타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손목을 이용해 간결하게 스윙하는 홈런에 매지하고 있다. 타격시 다리이용 법도 바꾸었다. 박준태는 “작년에는 넥센 이정후처럼 다리를 땅에 끌고 쳤다. 그러나 신체구조와 습관도 달라 잘 안됐다. 밸런스가 무너졌다. 마무리캠프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다리를 살짝 드는 타격을 했다”고 말했다.

내년의 모토는 후배 최원준의 자신감과 선배 김주찬의 집중력이다. 그는 “원준이는 어린 나이지만 자신있게 플레이를 한다. 난 어릴때 주눅들어 야구를 했었다. 주찬 선배는 여유와 카리스마가 있다. 경기에서 집중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그래서 베테랑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자신있는 플레이와 집중력을 보여 주겠다는 말이었다.

내년 시즌에도 외야 백업원으로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태는 “올해 85경기에 출전했는데 70%는 간을 풀이면서 했다. 이제는 마음이 편해져 좋은 지표가 나올 것이다. 어느 순간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 차분하게 내 플레이를 하겠다”고 말했다.

# 문우람 “검사에 속았다”...이태양도 문우람 누명 주장

“이유 없는 호의 경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태양(왼쪽)과 문우람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문우람 관련 이태양 양심선언 및 문우람 국민호소문 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승부조작으로 KBO리그에서 영구 실격된 전 넥센 히어로즈의 문우람(26)이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우람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며 “2015년 승부조작 경기와 관련해 그 과정과 현재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며 입을 열었다.

문우람은 2015년 5월 동료 선수 이태양(25·당시 NC 다이노스)과 브로커에게 먼저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KBO는 지난 10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영구실격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우람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우람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모든 걸 쏟아부은 부모님께 고맙고 죄송했다”며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꿈에 그르던 1군 무대를 밟게 되고 1군에서도 주전 경쟁에 밀리지 않을 정도의 성적을 내게 되면서 나와 우리 가족은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했다”고 말했다.

문우람은 브로커 조모씨와 알게 된 경위 등 승부조작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2014년 겨울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조씨를 알게 됐다. 2015년 5월 내가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폭행을 당해 힘들 때 소꿉

하면 기분이 풀릴 거라면서 조씨가 선물한 운동화 청바지, 시계가 결과적으로 나를 승부조작범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승부조작의 대가가 됐다”고 회고했다.

문우람은 “그 후 창원지법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 막상 조사를 받으니까 나는 이태양에게 돈을 전달하고 승부조작 대가로 조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며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태양이 문우람과 조씨가 먼저 공모한 것으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우람은 “검사는 이태양에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이태양에게 준거라고 거짓 정보를 줬다. 그래서 이태양도 처음에는 저와 조씨가 공모한 것으로 오해했다”며 “(이태양은) 조씨가 돈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나를 시켜 자신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승부조작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 이태양이 검찰에서 진술을 반복하고자 했지만 목살당한 채 창원지법은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서둘러 진행했다”며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나는 그 순간부터 현역 프로야구선수 최초 승부조작 브로커로 낙인이 찍혔다”며 억울해 했다.

문우람은 “진실과는 상관없이 유죄확정을 받았다. 그 때만 해도 저는 군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상무에 복역 중인 저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돼 6개월 간 군대 생활에 갇혀 있으면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굳게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KBO상벌위원회도 나와 이태양의 증언, 저의 재판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내가 브로커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했다”며 “대법원 형이 확정돼 영구실격이라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재실에서 무죄가 밝혀지면 상벌위원회를 다시 열겠다는 원론적 얘기만 했다”고 호소했다.

문우람은 “초등학교 2학년 부터 지금까지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영구실격 처분으로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세상에 베푸는 이유 없는 호의를 경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다. 설령 야구를 못한다 하더라도 진실만큼은 꼭 밝히고 싶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태양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우람이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는데 검사의 거짓말에 넘어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후 우람이와 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검사실을 찾아가 진술을 반복하려 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우람이가 누명을 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해 너무 속상하고 죄스러운 마음 때문”이라며 “죄인인 내가 나서서 것이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억울하게 희생된 우람이를 부디 재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KBO는 문우람이 법원 판결에 적시된 사실에 대해 다루고 있고,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심 결과에 따라 문우람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 정우람 “문우람, 허위 사실 유포 법적 대응할 것”

한화 이글스의 정우람(33)은 문우람(26·전 넥센 히어로즈)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문우람은 10일 이태양전 NC 다이노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우람은 자신은 승부

조작 브로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명 과정에서 승부조작을 한 선수 중 정우람 등 일부 선수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다.

이에 한화는 정우람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정우람은 “기자회견 중 밝혀진

불법시설 운영자 및 브로커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며 내 이름이 거론된 것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화는 “정우람이 무고한 선수에게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 숲이 있는

##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마을,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패야굴,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